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사랑의 불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달진 우리 마음의 뒤란에 은총의 햇살 넉넉히 비취주십시오. 까치발을 서서 먼 데를 바라보듯 우리 시선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막다른 골목 앞에 선 듯, 삶이 난감할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꽃등을 켜 듯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지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17:7-8
♠ 교 독 문	52. 요일4장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염혜영 선생 II.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성경봉독	I. 창6:1-12
	II. 엡4:11-16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어둠 속에 핀 꽃
	II. 사랑의 레가토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93.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1,3)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이들이 되십시오.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
로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삶이 힘겨워 비틀거릴 때도 있
겠지만,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와 우리 마음
을 뒤흔들어놓는 미움과 시샘을 재워주시고, 언제나 어디
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로마서 강해(65)
최원진 감리사(반석교회)	기도 : 노순옥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선생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윤석철 장로	다함께 권미정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 극 배상순	곽권희 정진경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한상익 문복순	최숙화 오성희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최초의 죄에 대한 벌이다. 말하자면 모든 죄는 배은망덕에 대한 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알았던’ 이방인들은 그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다(롬1:21 참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체험할 때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한다.

찬미와 감사의 제사인 성체 성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타고 있는 용광로이다. 그 희생 제사 안에서 예수께서는 성부께 감사드리며,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시고 바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 제사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희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번제 이상의 것’이다(호6:6 참조).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부께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것이 된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영적 생활에서는 사랑이나 미움에 대해 무관심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미지근한 태도가 그토록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까닭이며, 미지근함은 사랑으로 가장된 미움이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탁 털어놓고 사랑하지도, 탁 털어놓고 미워하지도 않는 영혼의 미온성은 곤경에 빠지지 않고 가상(假想)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일상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은 곧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으로 응답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참된 감사와 위선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둘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감사는 그 자체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두뇌의 작용 이상의 것, 공식화된 단어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머리 속에서 인지(認知)함으로써 받은 은혜에 대해 마지못해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함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들이쉬는 모든 호흡이 그분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이 은총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그 무엇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무응답일 때가 결코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에 눈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풍문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든다. (토마스 머턴, 『고독 속의 명상』 중에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예언자 엘리야에게 나누어준 가난한 과부처럼, 더 이상 나누어줄 것이 남아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자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도우려는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설교나 훌륭한 충고도 들어본 적 없고, 그들의 문제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어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이자 존재이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마/음/으/조/읽/는/글**

쓰러진 나무

저 아카시아나무는
쓰러진 채로 십 년을 견뎠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 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 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 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곡선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빛 소름,
십 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나희덕)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김춘려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김훈동	유경순	조관행	홍선희	구명자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백승민	정복순	박영숙	박옥순	김필순	박애순	박성수	김애경
임보람	노정숙	정완수	김재광	김정길	최숙화	임창선	김순복	이인웅
최종원	배상순	윤수진	김윤수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김혜권	박순희
박영희	이유선	방극숙	이봉배	윤미경	박시내	김지윤	김지호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고사일	최영선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문	조항범
오현정	백묘현	문금석	김홍기	김명순	박석희	조항미	김창원	정지은
황경순	정두리	권미정	황원순	김남종	오복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이정은	조병주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박상규	조항신	고숙이	김미순
유혜경	이갑재	김정섭	박찬정	박순성	송의섭	최동운	노봉님	이명옥
전영자	백혜성							

감사헌금:

이봉옥	유혜경	박권동	이재문	김춘려	한준혜	박창운	허정윤	김성한
조영순	백묘현	이명호	최윤희	무명2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구역회** : 오늘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각부 부장, 남녀선교회장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 감사 등입니다.
3. **교육부 모임** : 구역회 후 청년부실에서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장, 교회학교장, 각 교육부장, 교사들의 참석 바랍니다.
4. **임원친목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신임원 환영회를 겸한 임원 친목회를 갖습니다.
5. **1인1구좌 갖기 운동** : 우리 교회가 힘써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인걸 권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설날** : 가족과 더불어 흐뭇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설날 아침 가정 예배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 **신앙실천** :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되 허례허식은 삼가십시오. 온 가족이 집안 일을 분담하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만드십시오.

*헌물 - 윤주원 집사 (청년회실 악기용 앰프 3개)

*헌화 - 정두리 권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청년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